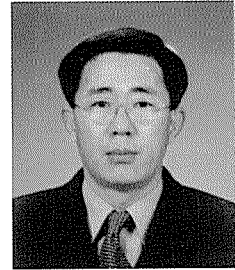


시·도지회총회를 마치고...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병술년이 되길 기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조기 가동을 위한 비상대책회의 개최



(사)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 최규철

얼마전 농민 관련 신문을 비롯한 국내 모든 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였던 큰 사건이 있었다. 바로 쌀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뉴스였다. 국가의 근간인 농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농산물이 쌀이었기에 그 비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한 여성 농민은 분신자살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막고 싶었던 현 시국에서 농민들은 사활을 걸고 제6차 세계 무역기구 홍콩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홍콩 현지에서 몸을 던져 각료회의를 저지하다 700여명이 홍콩경찰서에 수감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정부에 투쟁하다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양봉농가는 너무도 안일하게 보낸 것이 아닌지 돌아쳐보고 반성해 보자.

지금까지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 양봉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며 2006년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해 본다.

매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이면 각 시·도별 지회총회(분회총회)가 개최되고 한 해 업무를 결산하느라 전국이 떠들썩하다.

금년에는 우리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새로운 임원, 지회장, 분회장, 대의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등 수장을 뽑는 2005년의 정기총회이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선거문화가 축제에서 벗어나 너무 혼탁해져 가는 선거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서 앞으로의 양봉산업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분회장에서부터 지회장까지의 선거 진행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일부 판매업자가 개입되어 순수한 생산농가들을 현혹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역사 이래 없었던 혼탁한 풍도는 협회와 회원 간의 분열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양봉산업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

협회에서는 혼탁해지는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난 11월25일 대전 유성구 대운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기 가동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실시간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들이 금품수수 및 향음제공자에게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고 고발 조치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임원선거에 있어서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양봉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누구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임원 후보자들은 협회와 우리 양봉산업에 저해(협회/상대후보 비방 등)되는 요소들은 삼가하고 오직 양봉산업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원선거에 임해주길 바라며, 현 시국

의 대처방안을 위한 방법론 등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자만이 환영을 받을 것이고 협회원을 비롯한 모든 양봉농가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이밖에도 후보자들은 다각적인 정책 사업비전과 양봉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의 수장이 되어야 하며, 회원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야만 이 어려운 시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끝으로 모든 양봉인을 비롯한 지회장, 사무국장, 분회장, 대의원 등 지도층에 있는 양봉농가는 별 꿀처럼 맑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과열된 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음제공, 금품수수 및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자에게는 우리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선진 양봉인들이 먼저 보여주고, 후보자들은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건전한 양봉협회의 임원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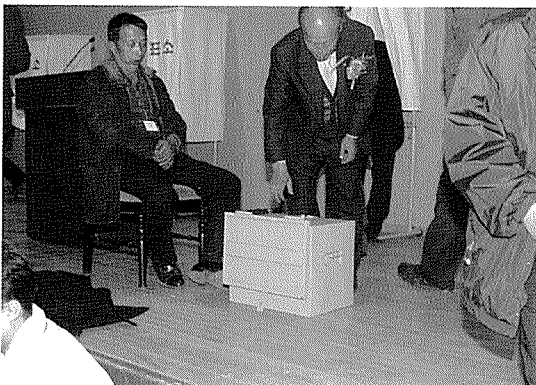
양봉협회는 양봉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농가중심의 활동으로 더 큰 성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투표전 성낙진 후보(경북지회장 당선자)의 유세 장면



이광섭 안동분회장이 정해운 회장으로부터 농림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고 있다.



경북지회 총회 및 지회장 선거 과정(투표과정)



후보자 소견발표(윤지훈 전사무국장)